

# 맘만 먹으면 다 뚱리는 인터넷 보안망

순습게 PC 먹통 시키고 주민번호 해킹까지

10대가 줌비PC 1700대 만들어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10대 고등학생과, 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허술한 인터넷 보안망 틈새를 비집고 악성코드 배포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디도스 프로그램으로 줌비 PC 1700대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16)군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군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줌비 PC 목록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박모(2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월 26일 낮 12시에 디도스 프로그램을 이용,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PC방의 컴퓨터 90여대를 마비시키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700여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 동영상 올린 뒤 이를 다운받은 컴퓨터를 감염시켜

줌비 PC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특히 중국 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공격 및 엿보기’ 기능이 포함된 디도스 프로그램을 변형,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과 함께 붙잡힌 박씨 등 3명은 ‘디도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며 김군에게 접근했으며, 지난 1월 28일께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군을 찾아 협박해 금품과 줌비 PC 목록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가입자 정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김군의 주민번호를 알아냈으며, 공백 중 한 명으로 목표 동사무소 공무원요원으로 일하는 김모(24)씨가 행정 전산망에서 김군의 주소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김군을 목표의 한 모델로 데려와 협박해 돈을 빼앗고 줌비 PC 운영 방법을 하부 동안 배우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찾아와 협박했다는 진술을 수상히 여겨 수사 끝에 공익근무요원이 포함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도스프로그램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관공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근로자·사업주... 급여 반환금 미납자 49명 고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부당 수령한 근로자와 이를 도운 사업주가 노동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회사에 제직 중이면서도 마치 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와 이를 도운 사업주를 고용보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차회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주와 근로자는 미리 짜고 실제 제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했다고 속여 고용 보험실·이직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372만6280원을 가로챘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근로자에게는 수급액의 두 배인 745만2560원을 부정수급 반환금으로 추가 징수하고 사업주와 함께 회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노동청은 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반환금을 내지 않은 장기 미납

자 49명도 함께 형사 고발했다. 고발조치된 49명 중 1명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일 이전에 1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숨기고 180일간의 구직급여 518만원을 받아 두 배의 반환금을 내야 함에도 이를 내지 않아 고발됐다.

광주고용센터에선 해마다 5월과 10월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해 자진신고자에 한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다.

또 상시 부정수급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 확정액의 최고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정보시스템과 제보자의 제보내용 등을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니원침 (8783) 김종두



승강장 유리닦는 자원봉사자

광주시 북구와 코레일 광주본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는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2013불런티어 액션-1day' 선포식을 갖고, 버스 승강장 유리닦기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정신지체 삼촌, 아파트서 조카 던져 숨지게 해

목표경찰은 27일 3살짜리 여조카를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13층 복도 난간에서 외조카인 생후 21개월 된 박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박씨는 이날 어머니(56)와 함께 출근한 누나 부부를 대신해 박양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지체 1급인 박씨는 지난 2002년 5월에도 아파트 복도 난간에서 5살 어린 아이를 던져 살인 미수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박양이 1m에 이르는 복도 난간을 올라갈 수 없다는, “출근한 박양 부부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있던 박씨 어머니의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진술 등으로 미리 박씨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자동차 대체연료 총판권 주겠다”

장성경찰, 8억대 사기 60대 구속

장성경찰은 27일 “자동차 대체연료 총판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6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동차 대체 연료 총판계약을 미끼로 6명으로부터 8억1300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독스를 개발해 판매한 창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하면 사업설명회까지 열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씨가 또 유사석유가 아닌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카사바 열매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이용한 대체연료를 개발해 곧 판매허가를 받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고 전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50대 무허가 소시지 유통

광주 북부경찰은 27일 무허가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소시지를 제조해 유통한 박모(5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한 소시지를 제조해 광주시내 마트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공장 에서 제조한 소시지에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표시를 허위로 붙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의 공장에서 소시지 84박스, 냉동육 등 54박스, 제조기계 2대 등을 압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징역 7년 구형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다니엔 회사 자재 훔쳐 수익 챙겨

○2년 동안 다니엔 회사의 자재를 빼돌린 뒤 이를 싹쓸이 되팔아 수익 원을 챙긴 30대 종업원이 검찰청.

○27일 보성경찰은 지난 2011년 10월 초부터 이달 25일까지 보성군 벌교읍 한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근무하면서 170회에 걸쳐 재활용 플라스틱 조각 340t(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경남 창원원의 한 동종업체에 훔친 자재를 시가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되팔았다는 데,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할 방침.

/\*보성=김용백기자 kyb@

# “너무 성급했다”... 성접대 의혹 수사 ‘숨고르기’

## 경찰, 동영상 소득 없고 관련자 진술 엇갈려 원점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 접대의 실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 동영상 분석에서 건진게 없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경찰 수사가 원점을 뺌도는 형국이 되면서 경찰의 의혹이 너무 나빠 증거로서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이 동영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A씨의 부탁으로 윤씨에게 빌려준 차를 회수한 P씨와 윤씨 조카가 동영상 원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진술로서 성 접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주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하면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수사가 고위공직자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성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고위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대가성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하던 D건설의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공사 수주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하고 혐의 입증에 전력하는 것도 결국 윤씨의 불법행위와 금품·향응의 대가성을 먼저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수사단 내에서 동일부는 의혹이 과연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는지, 입증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만큼의 대가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 측은 경찰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주기를 올린 이후 ‘경계망동’하다가 된통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3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자동차, 중기]					
2012타경 23830	1	사용본거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봉영길로 15, 135-2호 [우산동] 등록번호:37디7674 차형:연식:2.3승[지평동] 년식:2010	자동차	17,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2012타경 25928	1	사용본거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42번길 24 [화정동]	자동차	6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2012타경 30159	1	사용본거지: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115번길 7 [화정동]	자동차	12,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2012타경 31268	1	사용본거지:전주시 덕진구 석소2길 등록번호:66우9476 차형:SM5 년식:2009	자동차	13,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2012타경 31855	1	사용본거지:광주광역시 서구 상우중앙로 72번길 5-2, 3층[지평동]	자동차	3,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번 대주차장
2012타경 31879	1	사용본거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동로 803번안길 97 [용동] 등록번호:87노3153 차형:포터II [PORTER II] 연식:2005	자동차	3,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번 대주차장
2012타경 32803	1	사용본거지:전남 나주시 신내동길 31-3(승정동) 등록번호:83차2564 차형:라이노5년진개차 연식:2000	자동차	6,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94-3 심산주차장
2012타경 33844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47-19 [우산동] 등록번호:65오7664 차형:오피러스 연식:2004	자동차	9,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33974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신정로 131번길**	자동차	3,5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2012타경 35215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대평대로 450번길 4-1[농성동] 등록번호:광주02미41596 기종:골프식기 년식:2007	자동차	80,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서구교동 53 1-1메이비유리캐피탈 [주]
2012타경 35291	1	사용본거지:전남 순천시 조례연동길 5,304 동 506호 [조례동, 조례3차대우파크빌] 등록번호:40우4702 차형:Audi A8 3.7 Quattro 년식:2006	자동차	26,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번 대주차장
2012타경 35734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0101 동 1003호 [촌동, 부영사할로빌] 등록번호:20히3646 차형:스포티지 년식:2007	자동차	12,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번 대주차장
2013타경 124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우지로 347번길 15, 102동 1404호 [삼각동, 서라이파트] 등록번호:68도2631 차형:로제 년식:2008	자동차	9,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2013타경 254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동문로 192 101동 703호 [운안동, 불로산안1차아파트]	자동차	5,1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 심산주차장
2013타경 1622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쌍촌로 47 103동708호 [쌍촌동, 쌍촌주공아파트] 등록번호:05주3139 차형:사브[SAAB] 년식:2006	자동차	10,000,000	보관장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156-2[보관차최정미]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몰수당사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일: 2013. 4. 11. [목] 10:00  
3. 매각결정일: 2013. 4. 18. [목] 10: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장에는 비싼 가격의 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납입한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봉투에 넣는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과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등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봉투에 밀봉한 입찰표 개수를 봉투에 표기하고 봉투에 기재된 입찰표 개수를 초과하여 봉투에 기재된 개수 이상으로 밀봉한 사항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와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장까지 출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일자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 매수인인 입찰자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과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증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차익금, 배당금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예되고,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 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장권, 기입등본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유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차장권등기 유예는 최종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은 부동산 장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권 주체 또는 참가자들에 최선승위의 차등권이 설정된 납부보증금 인차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그 후 가지고 가주어야 하는 입찰자이다. 사법 자문위원을 통한 차등권 인정 및 차등권 유예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입찰인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이 매각대금과 차등권 유예를 집행할 때, 집행조치신청서 및 참가자의 신분 등 유리방화 인시정(신용보증)에 대하여 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청탁을 완료한 후 입찰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인출시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청환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는 봉투에 밀봉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지급신청이나 은행예금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경매는 법원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계시도 매각대금의 공고나 비추는 매각결정일에서 등록 직할 직원에게서 입찰표 하기 바랍니다.  
2013. 3. 28.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권